무용지물과 한심한 벌레들의 화해

(고후12:1~10)

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무용지물과 한심한 벌레들의 화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우선 한 번 이런 질문들을 해볼까요?
우리가 읽은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라는 것은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14년 전에, 그러니까 AD 40, 41년경이 되겠습니다, 회심을 하고난 직후부터 1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 같아요.
어떤 경험을 했나 하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천국에 대한 생각 속에는 천국이 7층으로 되어있다, 3층으로 되어있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 중에서 가장 깊은 곳, 가장 궁극적인 높은 곳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와 그 우편에 계시는 인자를 보셨던 바로 그 자리가 될 거예요, 보좌가 있고 우편이 주님이 계신 그곳보다 더 높은 하늘은 있을 수 없을 테니까.

어쨌든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하늘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체험을 하게 되고 많은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의 몸에 불치병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병명이 무엇인지는 학자들 간에 분분한 의견이 오고갑니다만, 어쨌든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천국을 체험하고 많은 계시를 받고 한 것 때문에 자만하게 되는 것이 먹히는 자만일까요?
천국을 경험했다는 것을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더 쉬울 수 있어요.
서울대 입학한 학생은 자만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만해질 수 있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정작 서울대를 들어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니까, 서울대 들어가면 우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자만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하고 벌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극소수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외모가 출중하면 자만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 동건 씨와 김 태희 씨가 자만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출중한 외모를 선망하지만 극소수만 빼어난 외모를 갖고 태어나니까.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면 자만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바라는데 극소수의 목사님만 천 명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누가 천국을 경험했고 계시를 많이 받는다고 사도바울을 잘난 걸로 알고 부러워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스테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보좌와 우편의 인자를 봤다고 하니까 다들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해서 분노로 변하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사회 고린도에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그 누가 부러워할 일이라고 자만할 수가 있겠으며, 자만이 먹힐 수가 있겠습니까? 자만이 통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도 그렇고 고린도교회도 그렇고, 요즘 교인들 간에도 그래요, 천국을 봤다고 그러면 약간 또라이 아닌가, 너무 종교적으로 광신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그리고 또 계시를 받았다, 일부 국한된 신비주의자나 이상한 예언을 쫓아다니는 잘못된 신앙

인들이 아니면, 계시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 계시 얘기를 많이 하면 그것도 역시 좀 이상한 삐딱한 눈으로 보지, 부러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만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것과 계시를 많이 받은 것으로는 자만하려 해도 자만이 통하지를 않는데요 뭐! 받아들여줘야 자만이죠.

그리고 천국을 실제로 많이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서울대, 돈 많이 버는 것, 학 박사 학위, 이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 자신에게서는 돈 많이 갖고 있는 재벌이 한없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 됐다고 우쭐대는 사람이 한없이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간에는 단절이 있을 뿐이에요.
자만도 교만도 서로 통할 수 있는 공통기반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공통적으로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번 사람은 한 사람뿐이니까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지, 공통지반이 없는데 어떻게 교만해지고 자만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도바울이 볼 때는 정말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이 일부 소똥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재벌 되었다고 좋아하고 대통령 됐다고 좋아하고, 학 박사 되었다고 좋아하는 그 모습이 소똥 많이 모았다고 좋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한심한 벌레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편 또 이쪽에서는 사도바울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무용지물인 겁니다.

이처럼 이 양자 간에는 오직 단절만이 있을 뿐이니 이 단절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단절을 극복해야 복의 근원이 되고 선교가 가능하고 복음전파가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단절을 단절 그대로 놔둬서는 안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게 그냥 글자로 있는 천국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에 천국이 있어요.
지금 미국이 있고 부산이 있고 서울이 있는 것처럼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는 걸 좋아할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여간 천국을 갖게 되고 셋째 하늘, 가장 깊은 곳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주님을 뵙고 나면, 이 세상에서 돈 쫓아가는 사람 숫자적으로 교회부흥 쫓아가는 목사님, 다 벌레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바울의 고린도교회에 관한 얘기를 쭉 진행하는 가운데 교회부흥에 관한 얘기가 단

한 마디나 나옵니까? 전서 후서 다 통틀어서.
이제 후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교회 숫자가 늘지 않았다는 게 단 한 마디나 있습니까?

자, 이 양자 간의 단절과 간격을 극복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불변해요.
뭐냐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도바울이 3인칭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경험했다'
3인칭을 쓴 이유는 굉장한 일이라고 바울은 자기 마음에서는 느끼고 있는데, 이 굉장한 일이 자기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뜻으로 3인칭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일로써 지금 미국이 있는 것처럼, 뉴욕이 있고, 부산이 있고 서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이 있으니까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절대 불가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참 신앙인이 되려면.

자, 이런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심한 벌레들로 보이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시키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서게 하십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정해지는 위치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서게 하심으로써 한심한 벌레처럼 보이는 이 시각을 극복하게 하시고 단절을 극복하고 그들을 향하여 자기가 경험한 천국을 전하도록 하는 사명을 주시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높은 곳 셋째 하늘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사는 이 세상의 삶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늘을 경험하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고, 하늘을 경험하면 세상 사람들을 한심한 벌레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한심한 벌레 중에 두심한 세심한 벌레의 위치에 서게 하심으로써 한심한 벌레들을 섬기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참~ 신비한 얘기 아닙니까?
가장 높은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서야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마는, 그 중 어거스틴이나 토머스 아퀴나스

같은 고전적인 학자의 경우는 이 사도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끊을 수 없는 음욕으로 봅니다.
사도바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정욕이 이어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욕이 생길 때마다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가장 낮은 자리로 임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캘빈이나 크리소스톰, 루터 같은 사람은, 특히 루터는 ,사탄이 사도바울 마음속에 끊임없이 망령된 생각을 넣어준다, 그래서 망령된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신앙적 자각이 있는 사도바울로서는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아, 나는 정말 죄인이로구나!'라는 걸 깨닫고 낮은 자리에 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 학자들은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자기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힌트를 얻어서, 즉 '너희를 시험할 만한 일이 내게서 보일 때에 너희가 나를 감싸주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근거해서 간질병이나 안질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간질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간질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사람을 보는 입장에서는 시험에 들 만하지요.
아니, 복음을 전한다더니 자기가 간질에 걸려서 저렇게 나자빠지고 있으니까, '저나 잘 믿고 복 받지, 원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 거냐?'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바울로서는 도대체 그러한 육체의 가시를 안고는 자기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게 낮은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내려가시는 겁니다, 자꾸.
자기에게서 간질이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는데도 그 병은 고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박아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자리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딥니까?
주님이 만들어놓으신 자리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 자리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신분과 위치와 지위 중에 가장 낮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돈 좋아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배신을 하고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볼 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한심한 사람들이 귀중하게 보일 정도로 낮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간질이라든지 약함 무력함을 일깨우시면서 사도바울의 마음의 방향성을 밑에서 우러러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간질이 일어날 때면, 낮은 곳으로 마음을 향하게 해서, 그 낮은 곳의 마지막 지점인 십자가에까지 도달하게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약한 것이 발견될 때마다 내 마음의 방향의 시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가장 낮은 곳인 십자가에 이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이르러서 사람들을 봅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내려가서 자기가 두심하고 세심한 벌레 같은 위치에 서게 됨으로써 한심한 벌레 같은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상황이 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자기가 낮아질 때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그 때에.
그래서 십자가라는 자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이면서,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맞닿게 되는 자립입니다.
아! 이거 참으로 신비하지 않아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 육체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하늘에 연결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육체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음과 육체의 삶이 둘 다 하늘에 연결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육체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지위 중에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늘과 닿게 됩니다, 하늘의 능력과 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강함을 자랑하고 있음을 자랑하는데, 사도바울은 이 비밀과 신비를 알았기 때문에 없음을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없음과 약함의 방향으로 내 시선이 돌려질 때 십자가에 도달할 수 있고,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맞닿을 수 없기 때문에, 사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빈곳이 채워져야 마음이 배부르게 되고, 배부름이 있어야 기쁘게 되고, 기쁨이 지속될 때 행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빈 구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늘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려가기를 소망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을 수 있으니까.
이때 십자가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 위한 길로써의 십자가로 작용합니

다, 모든 세상 것에 대해서 다 죽으니까.
하나님만을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셋째 하늘로 끌고 올라가십니다, 사도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 한심한 벌레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삶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를 십자가까지 끌어내립니다.
이때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 죽는 자리이고, 이 세상의 육체의 삶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가장 낮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래서 가장 약하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 살짜리 꼬마는 의자를 갖다놓고 엄마가 선반 위에 놓은 초콜릿을 꺼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성인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섯 살짜리가 하는 것도 못해요.
그러니 다섯 살짜리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요.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내 육체의 삶이 점점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채워져 간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사도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 일입니까?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을 향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 살려두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모든 신앙인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사도로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살기 위해서 마음이 가장 높은 곳으로 임하고 육체의 삶은 가장 낮은 위치에서 진행됨으로써 하늘에 닿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요는 하늘에 닿아야 됩니다.
마음이 하늘에 닿아야 되고, 우리 육체로 이루어진 이 삶이 하늘에 닿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좋아할 만한 것에 대해서 다 죽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드릴 때 마음이 천국

으로 닿게 됩니다.
셋째 하늘을 갖게 됩니다.
지금 천국은 내 머리 위에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낮은 자리인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셔서 능력으로 당신의 계획으로 당신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십니다.
아!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돼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사도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루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도 하늘에 닿게 해주시고 내 육체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이 삶도 하늘에 닿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을 세상을 떠나 하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시며, 우리 육체의 삶은 십자가가 차지하는 가장 낮은 위치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